

4) 배 구

배구는 1916년 3월 25일 기독교청년회 운동부와 유년부의 사업을 돕기 위해 취임한 반 하트에 의하여 처음 소개되어 점차 보급되었다. 최초의 시합은 1917년 3월 30일 기독교청년회 체육관에서 서양인이 서편, 청년회원이 동편이 되어 실시한 경기로 청년회원들이 3 대 0의 스코어로 승리를 거둔 것이 효시라 할 수 있다.

순천 배구는 1940년경 이곳 출신 김덕수가 서울 선린중에서 배구선수 활동을 마치고 순천 철도국 용품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철도국 배구팀을 창단하면서부터이다. 김덕수를 비롯한 이재호·최점암·채규성·조원만 등이 주축이 된 철도국 배구팀이 당시 전국철도 배구 대회에서 우승하자 이 지역의 배구는 점차 활성화되었다.

해방 이후 1947년 순천사범이 개교하고 대구사범 출신의 성희준 체육교사가 부임하여 순천사범 배구부가 창단되었다. 이때의 선수는 이재의·조승태·조원익·방춘태·황용운·백행기·이근배·서정로·송병용·이정화·박노식 등이었다. 특히 황용운 세터의 재치 있는 공 배급과 이재의 선수의 속공, 푸싱, 페인트기술이 특출하여 세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1948년 전국체육대회에 박홍석·이재의·김동율·조원익·최재석·황용운·방춘태·백정길·박상익 등이 전남대표 선수로 출전, 이듬해까지 연 2년간 도대표로 활약하여 이때부터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순천 배구의 발전은 무엇보다도 순천 철도팀과 순천사범 간의 연습경기를 통하여 서로의 실력을 배양함으로써 이루어졌다.

1961년에서 1964년까지 9·18철도창설 기념대회에서 순천팀은 이행충·김국진·김학열·김세원·임병옥·박희장·정길봉·박청일·오철·박재훈 등이 활약하여 우승을 차지하였다. 특히 1973년부터는 김덕수기쟁탈 동부지구 배구대회를 해마다 개최하여 배구 저변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배구팀을 육성하는 학교는 별량중과 남산중학교이다.